■美 11·7 중간선거 민주당 하원 장악

11·7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으로써 미국 정치지형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지난 1994년 이후 12년간 지속된 '의회 공화당 지배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의회 운영 방식을 비롯, 한미관계, 북핵, 이라크전 등 대내외 정책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라크전·부패비리…유권자들 공화에 등 돌려

◇민주당 승인과 공화당 패인=미국의 유권자들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준 것은 이라크전 비판 여론과 공화당의 잇딴 부패·비리사건 및 추문 등에 실망한 나머지 정부를 견제할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와함께 집권 공화당이 안보를 비롯, 경제, 불법 이민 등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비해 우위를 점해온 이슈에서도 차별화하지 못했고 부동층 유인에도 실패한 것으로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와 공화당이 12년동안 장악해온 의회에 대한 불신, 국민들의 '바꿔 열풍'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 독주 제동 걸리나=하원이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전환되면서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대외정책 노선에 제동이 걸릴 공산이 커졌다. 그간 행정부와 의회, 주 정부를 완벽하게 장악, '트로이카 주도체제'를 구축해 온 공화당의 독주가 어떤 형태로든 종말을 고할 수 밖에 없게 된 셈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 직후 'ABC(Anything But Clinton,빌 클린턴 정책만 빼고는 무엇이든)'를 표방했던 것처럼 이제는 민주당이 'ABB(Anything But Bush)'를 내세우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그간 공화당의 장악으로 무너졌던 '견제와 균형' 원칙이 국정운영 전반에 서서히 되살아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된다.

◇美 대내외 정책 급변하나=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은 이라크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이라크 전쟁을 밀어붙였던 부시 행정부를 더욱 거세게 압박할 게 분명하다.

때문에 이라크전을 비롯한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반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이라크 카드' 하나로 압승을 거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조기 철군 또는 미군 재배치에 최우선 역점을 둘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

공화 12년 독주 염증…예견된 패배
한·미 FTA엔 부정적 영향 미칠 듯
부시 조기 레임덕·군수업체 악영향

◇부시 레임덕(권력누수현상) 가속화되나=이번 선거는 부시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집권 2기 임기를 2년 3개월여 남겨둔 부시의 조기 레임덕 현상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선거유세 과정에서 부시는 외면당했고, 인기없는 이라크전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조차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점도 조기 레임덕을 부채질하고 있다.

◇북미대화 압박 가중-FTA 부정적 영향=북핵 문제는 물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한국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해온 부시 행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에 제동을 걸고 북미 직접대화를 강도 높게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대북 제재카드로 북한을 6자회담장으로 끌어냈다며 대북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대북정책 기조가 급변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그리 많지 않다.

민주당의 승리는 공화당이 추진해온 자유무역주의의 퇴조와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에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많아 농업 부문의 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타결도 어려워지고 타결 이후 의회 비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지도부가 7일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승리를 자축하며 환호하고 있다. 왼쪽부터 람 에마뉴엘 하원선거대책위원장,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 해리 라이드 상원 원내총무, 찰스 슈머 상원선거대책위원장. /워싱턴AFP=연합뉴스

■화제의 당선자는

사상 첫 무슬림 하원 의원 탄생
슈워제네거, 민주 후보 따돌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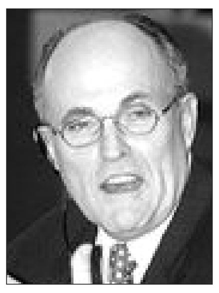
미국 중간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이슬람교도 하원의원이 탄생했다.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한 민주당 케이스 엘리슨(43) 후보는 경쟁자를 누르고 당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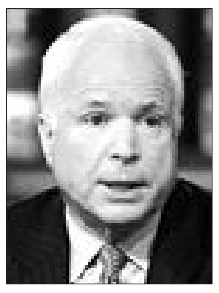
흑인인 엘리슨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이슬람교도라는 사실 때문에 공화당과 제3당 후보로부터 신랄한 인신공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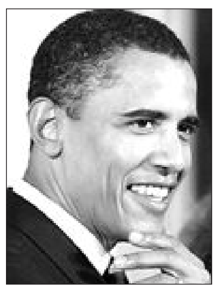
또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됨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66)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하원의장에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지 부시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이기 때문에 펠로시는 지난 1994년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 이후 12년만에 야당 출신 하원의장이 될 전망이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AP통신의 출구조사 결과 주지사 자리를 놓고 격돌한 민주당의 필 안젤리데스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매사추세츠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디발 패트릭 후보가 공화당의 케리 헤일리 후보를 꺾고 당선돼 미 역사상 두번째 흑인 주지사가 됐다. /연합뉴스

〈힐러리 클린턴〉


〈루돌프 줄리아니〉


〈존 매케인〉


〈배럭 오바마〉

〈앨 고어〉

■美 대권 레이스 점화

힐러리·줄리아니·매케인 '3인방' 주도
민주 '떠오르는 별' 오마바 의원 급부상

미국의 2008 대권 경쟁 레이스에도 점화가 시작됐다.

공화당의 패배로 끝난 11·7 중간선거 결과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게 뻔해 공화, 민주 양당 대선주자들이 사실상 숨가쁜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각당 대선주자들은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원유세를 통해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이미지 개선과 세확산에 주력해왔다.

특히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공화당의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 '3인방'이 이번 선거기간에 집중 부각됐다.

무엇보다 "힐러리 의원은 이번 선거를 대선 전초전처럼 치뤘다"는게 선거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민주당에서 또 한명의 주목할 인물은 흑인 배럭 오바마 상원의원(일리노이)이다. 그는 이번 유세과정에서 맹활약을 함으로써 자신이 '떠오르는 별'임을 입증했고 '록 스타'처럼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벌써부터 '힐러리-오바마' 카드가 환상의 콤비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아직 크게 부각되진 않았지만 지구 온난화현상 방지에 주력하고 있는 앨 고어 전 부통령도 '다크 호스'로 꼽히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상원, 민주-공화 50:50이면

부통령이 의장 겸직
'캐스팅 보트' 행사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12년 만에 하원을 장악한 가운데, 상원의 권력향배가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버지니아, 미주리, 몬태나주 등 3개 주에 온통 쏠려 있다.

중간 개표 결과 상원에선 일단 공화당이 49석을 확보했고, 민주당이 46석, 무소속이 2석을 각각 확보했다.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3개 선거구에서 공화당이 한 곳, 민주당이 2곳에서 승리할 경우 상원 의석분포는 50대 50이 되게 돼 의원들의 상임위원장 배분 등 상원 운영 방식을 놓고 양당간 갈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하도록 돼 있어 양당간 자리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50대 50이 되더라도 의결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법상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연합뉴스

"사람 얼굴보다는 텅 빈 TV화면 더 좋아"

英 6~8세 어린이 조사 '충격'

6~8세 사이의 영국 어린이들은 텅 빈 것일망정 TV 화면을 사람 얼굴보다 좋아한다는 연구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 글라스고 대학 연구진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화면에 아무 것도 없는 TV 스크린과 웃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나란히 보여주자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사람은 보지 않고 텅빈 스크린을 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TV 화면에 반응하는 어린이들의 행동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 음료 그림에 보이는 반응과 같은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사람의 얼굴은 중요한 사회적 자극인데 어린이들이 TV 화면을 선호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아이가 그저 상자만을 뚫어지게 바라본다면 진정한 상호작용을 배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라스고UPI=연합뉴스

"日 핵제조 당장 가능 韓·대만은 시간 걸려"

美 의회조사국 보고서

일본이 현재 보유중인 플루토늄으로 당장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믿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가 지적했다.

8일 산케이(產經)신문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은 북한 핵실험에 관한 보고서에서 핵 전문가들은 향후 북한의 핵위협 증가와 함께 아시아에서 핵무기 개발 경쟁이 일어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와 조직에 건네지는 상황을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일본이 먼저 핵무기 개발계획을 개시, 한국이 이를 잇고 국제사회의 동향을 지켜보며 대만도 핵보유의 길을 선택한다는 '핵 경쟁'의 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중국 역시 핵무기의 숫자를 늘리고 이것이 남아시아에서의 핵개발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특히 보고서는 "대부분의 비확산 전문가는 일본이 보유중인 플로투늄을 사용, 곧장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한국과 대만은 (핵 제조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투하에 관한 기억이 선명히 남아 있어 국민의 다수가 핵무기 보유에 저항감이 강하다면서 "일본이 급격히 핵무기 개발로 달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최근 일본의 '핵 무장론'은 중국과 한국이 대북(對北) 압력을 행사토록 하기 위해 다분히 의도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편 사사카와 다카시 자민당 당기위원장은 7일 당지도부 연락회에서 일본의 국시격인 '비핵 3원칙'을 수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발언, 정부 여당에서 제기된 '핵 무장론'의 대열에 올라탔다. /도쿄=연합뉴스